

성도의 교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여 교회의 양육과 목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담임목사 혹은 안내자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1. 예배시간 전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을 활용하세요.
*말씀묵상, 성경암송, 성경일독, 순모임 자료
3. 식사 준비 및 정리 :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4. 공동의회(12/15 주일) :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5. 송년 식사모임 : 12월 25일 성탄절예배를 드린 후 점심식사합니다.

* 기도 제목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 함께하는 주일학교와 남산교회를 위해
-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족을 위하여, 군복무 중인 황정필 형제를 위해
- 이강진 집사님 부모님, 이미정 성도님 아버님, 정주리 성도님 어머니, 최수연 사모님, 최재욱 성도님 어머니, 하유미 성도님 어머니 건강, 장윤경 사모님 아버님을 위해
- 김윤기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섬기는 분들 ■				
		이번 주(12/15)	다음 주(12/22)	12/29
기 도	주일오전예배	이승재 전도사	이윤경 성도	이강진 서리집사
	주일오후예배	박철호 서리집사	이강진 서리집사	이승재 전도사
성경 봉독		이미정 성도	이빛나 성도	이윤경 성도
식사 준비		이강진 순	이윤경 순	만나
정리		이윤경 순	이강진 순	-

* 주보와 유인물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헌금과 후원을 위한 계좌 - 국민은행 474501-01-143450 (예금주: 열매맺는교회)



제6권 50호 2019.12.15

바 른 신 학
바 른 교 회
바 른 생 활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인도 김윤기 목사

찬	양	다	같	이
♣	예 배 부 름	인	도	자
♣	기 원	인	도	자
♣	송 영	찬송가 20장	다	같	이
♣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	참 회 와 용 서	다	같	이
회 중 찬 송	시편찬송 84장, 찬송가 254장		다	같	이
시 편 교 독	시편 139편		이	미	정 성도
목 회 기 도		인	도	자
설 교	야고보서 4장 13-17절		김	윤	기 목사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					
찬 송 과 기 도	찬송가 368장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기 도	현상과 성도의 교통을 위하여		이	승	재 전도사
♣	찬 송	찬송가 383장	다	같	이
♣	축 도	설	교	자

♣ 표는 일어섭니다.

담임목사 김 윤 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14(개포로 506) 청우빌딩 601호 / 02-3412-1012

주일 오후 모임

오후 2시 30분 인도 : 김윤기 목사

찬 송: 다 같이
 기 도: 박철호 서리집사
 본 문: 미가 7:18-20
 제 목: 인애하신 하나님
 합심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인도 : 김윤기 목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0주일
 찬 송: 다 같이
 본 문: 시 72:15-20
 설 교: 영원한 이름
 기 도 회: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및 기도회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00분
주일오후모임	오후 2시 30분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00분

- 함께하는 주일학교 -

영아유치부	주일 오전 10시 30분
-------	---------------

* 남산교회와 함께 모입니다.

- 성경 공부 -

소그룹나눔	주일 오후 1시 00분
새 가 족	주일 오후 1시 00분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0주일 - 기도에 관하여

125문: 빛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 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 설교 노트: 약 4:13-17,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

1. 주 앞에서 낮추는 지혜

지혜의 근본이 주를 경외함인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핵심은 주 앞에 자신을 낮추는데 있습니다(잠 9:10; 약 4:10).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사는 삶이 지혜입니다.

주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삶의 방식(4:10)

형제를 비방/비판하지 않는다(4:11-12) ->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춤
 내일을 자랑하지 않는다(4:13-17) ->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지 않는다(5:1-6) ->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춤

2. 두 가지 삶의 방식

1) 어리석은 사람

내일을 자랑함(13절) 허탄한 자랑(16절) -> 교회로 들어오는 세상 영광

2)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기억하는 두 가지

(1)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을 사는 인간 존재(14절)

(2)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지혜(15절)

->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지혜

3. 주의 형제여 응답하라

하나님은 이미 교회에게 선을 가르치셨으며, 교회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17절; 빌 2:13).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세상 영광의 물결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세상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눅 12:16-21).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눅 12:15).

우리 목숨과 몸은 이제 주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새를 기르고 들꿀도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새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눅 12:24,28).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눅 12:31). 그 나라의 방식을 따라, 긍휼과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눅 12:32-34).

주님은 안개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 보여 주는 사람들입니다.